

순천, 로컬푸드 활성화 상생모델 제시

건강한 먹거리 공급·농어민 안정적 소득 보장 올해 매출액 140억 원·회원 3만 명 달성 목표

순천시가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어민에게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로컬푸드를 활성화해 도농 복합도시에 걸맞은 상생협력 모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순천 로컬푸드씨는 시민과 농민이 함께 주주로 참여해 지난 2016년 1호 직매장인 국가원점점을 개장한 이후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시민들의 호응에

합입어 2018년 2호 호수공원점, 2021년 3호 신대점을 연이어 개장했다.

매출도 2020년 96억 원에서 2021년 115억 원으로 1년 사이 20%가 증가했다. 특히 로컬푸드 매출액의 86%가 생산 농가로 환원돼 농가 소득증대에 직접 기여하고 있다.

순천시는 올해 로컬푸드 매출액 140억 원, 소비자 회원 3만 명 달성을 목표로 로

컬푸드 활성화에 나선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2022년 소비자 회원 3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신규 회원가입 인센티브와 특판전 및 이벤트 확대, 소비자 팸투어와 식문화 교육 등을 통해 고정 소비자를 확보해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진단 연구유역을 통해 경영 내실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만족도 조사, 생산자 및 출하품목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상품을 제

발한다.

아울러 시 신청서에 4호점을 개장하는 등 장기적으로 직영점 확대를 통해 로컬푸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로컬푸드를 통해 도농 복합도시에 걸맞은 도농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농식품유통과 관계자는 “지역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영세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 안전농산물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로컬푸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

“일상·민생경제 회복 역점 출산장려금·일자리 확대”

2022 새해설계

정현복 광양시장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회복, 새로운 미래 투자, 도약과 성장, 시민 삶의 질 향상을 핵심에 두겠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최근 영상 브리핑을 통해 “2022년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며 5가지 중점시책을 밝혔다.

광양의 대도약을 위해 이차전지, 소재부품산업, 수소산업, 데이터산업을 4대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익신산단은 친환경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를 구축해 리튬이차전지 양극재 생산의 최적으로 만들고 황금산단에는 오라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건립해 빅데이터 시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용자금 이차보전 지원과 시설개선 지원, 맞춤형 특화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다함께 누리는 시민행복 맞춤형 복지시책을 더욱 강화한다. 출산장려금은 둘째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셋째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하고 어르신 일자리 사업도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해 확대 시행한다.

또한 관광·문화예술 도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백운산과 광양읍, 섬진강과 구룡산의 4개 권역별 핵심 관광 기반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2025년까지 놀이와 레저,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가족형 관광거점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립미술관과 광양 예술창고, 유당공원과 명품가로수길 일대를 거점문화시설로 조성해 생활 속에서도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연, 전시회를 확대한다.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 정주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목성지구 포함 7개 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 완공하고 광영동은 202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기후위기 극복의 지렛대 역할을 할 전기·수소차 보급, 노후 경유차 친환경 전환 등 광양형 그린모빌리티 사업도 전개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광양시는 일상으로 회복을 선도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담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며 “끝까지 최선을 잃지 않고 시민의 민생과 광양의 미래를 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가정용 공구 빌려 쓰세요” 광양읍 ‘공유센터’ 개소

광양시 광양읍이 최근 ‘생활공구 공유센터’를 열고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를 시작했다.

10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읍 생활공구 공유센터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용품에도 사용 빈도가 낮아 가정에서 구입하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각종 가정용 공구를 무료로 대여해 준다.

대여 가능한 공구는 전동드릴, 톱, 망치, 니퍼 등 43종으로 만 19세 이상 광양읍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과 보증금을 지참 후 광양읍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대여료는 무료인 대신 공구당 보증금 1만 원을 납부하고 공구 반납 시 공구에 이상이 없으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다.

공구는 가구당 최대 3개까지 대여 가능하며, 대여기간은 대여일로부터 3일 이내이나 1회에 한해 최대 2일 연장 가능하다.

광양읍 생활공구 공유센터는 광양읍사무소 1층 총무과 내에 유리진열장으로 설치됐으며, 읍사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한눈에 공구 목록과 실물을 살펴보고 필요시 대여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를 고려했다.

광양읍 관계자는 “평소 생활공구 대여에 대한 주민들의 문의가 많았는데 이번 생활공구 공유센터를 개소하게 돼 기쁘다”며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가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 속 작은 불편 해소는 물론 공유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권오봉 여수시장이 김한민 영화감독과 함께 진모지구 영화 촬영장을 둘러보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사후활용 모색

목조건물 관리비용 등 고려

여수 돌산 진모지구 영화 촬영장이 추진 막바지에 돌입하면서 영화세트장 사후 활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돌산 진모지구는 국내 영화 역사상 최다 관중을 기록한 ‘명량’의 후속작인 ‘한산’과 ‘노랑’이 촬영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빅스톤픽처스에 따르면 ‘한산’은 제작년 10월, ‘노랑’은 작년 6월에 촬영을 끝내고 개봉 준비를 마쳤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개봉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안에 두 거작이 개봉할 예정으로

‘명량’에 버금가는 관객을 기록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어 돌산 진모지구에서는 드라마 ‘칠년전쟁’을 촬영한다. 올 상반기 연기자 캐스팅 및 시나리오 작업을 거쳐 드라마에 필요한 세트장을 보수한 후 하반기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올해 촬영 종료를 앞두고 영화세트장에 대해 사후 활용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다”며 “현재 영화세트장이 대부분 목조건물로 유지보수,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고 다른 사·군 영화세트장 운영실례,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추진 등 사후 활용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용역을 실시해 활용여부

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4월 권오봉 여수시장과 ㈜빅스톤픽처스 김한민 감독이 진모지구 영화 촬영장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어 3년간 유상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영화세트장을 조성해 영화 2편과 드라마 1편을 촬영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르면 사용기간 만료 때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되 사후활용 가능 구조물에 대해서는 여수시의 판단에 따라 기부채납 등 절차에 따르기로 하고 사후 영화세트장으로 활용할 경우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고흥, 일상회복지원금 13일부터 지급

고흥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전 군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65세 이상은 현금으로, 64세 이하의 고흥사랑 상품권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한다. 외국인 경우 결혼이민자와 영주자격 취득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65세 이상 주민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 기초노령연금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은 군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별도 신청해야 한다.

64세 이하 군민은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과 동시에 세대원 1인당 10만 원씩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전남취재본부=진중언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광양희망도서관, 겨울방학 특강 인기

광양희망도서관이 어린이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운영 중인 AI·소프트웨어 특강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연령별 맞춤형으로 개설한 교육과정은 ▲3D 매직펜 ▲언플러그드 보드 게임 ▲네모로 시작하는 코딩 ▲만들 Go! 코딩하Go! ▲어서와-메타버스는 처음이지? ▲날아라! AI 코딩드론 등 모두 6개 프로그램이다.

겨울방학 특강은 지난달 수강생 모집에 들어가자마자 30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교육과정 개시 전부터 어린이들로부터 관심을 끌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하는 기기들을 조작하며 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어 좋다”며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구례여중 학생들, 비즈공예 수익금 기탁

구례여중 1학년 학생들이 최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구례군에 26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하다솜 교사와 학생 8명은 비즈공예로 만지와 팔찌를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정 기탁했다.

하다솜 교사는 “이웃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좋고 함께한 학생들에게는 소중한 삶의 가치를 심어줄

수 있어 보람됐다”며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좋은 곳에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웃을 위한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선물이다”며 “따뜻한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철학적인 교육농촌을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손석봉 기자



순천대 로켓연구팀, 과기부 장관상

순천대 로켓연구동아리 로켓단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제19회 전국 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순천대 우주항공공학과 김지웅씨 등 7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로켓단은 이희남 교수의 지도하에 ‘고체연료 추진 로켓엔진과 덕트팬을 이용한 회수 가능 2

단 로켓 설계’를 주제로 자체제어용 핵심 부품 설계 및 시험 내용을 담은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희남 지도교수는 “이번 수상은 순천대 우주항공공학과 학생들의 로켓 연구에 대한 열정과 설계 능력을 인정받은 값진 결과”라고 말했다.

/이주연 기자